

치 사

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

1,700여 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와
선수행의 정신을 오롯이 담은 “국제
템플스테이센터”의 상량식을 거행하는
날입니다.

그간 “국제템플스테이센터”의 상량식을
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
문화체육관광부와 센터건립 유치에
전력을 다해주신 추재엽 양천구청장님,

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
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.

그리고 평소 불교발전에 물심양면으로
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내외 귀빈들과
이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하여
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
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전통문화 계승·사업발전을 위한 국제
템플스테이센터의 상량식을 2천만 불자와
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건립불사가
장애 없이 원만 성취되기를 간절히
기원합니다.

우리 불교계는 그 역사와 우수한 전통문화에 비하여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, 그리고 각종 교육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하지만 국제적인 규모와 프로그램을 갖춘 “국제템플스테이센터”의 건립을 통해 국내는 물론, 전 세계에 한국불교의 유구한 수행 종풍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특히 정신문화에 높은 관심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선 수행법을 알림으로서,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수행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
오늘 상량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는 중앙과 지방정부, 불교계 사부대중 모두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 위상 제고와 우리 전통문화의 품격을 높이는, 뜻 깊은 다짐을 하고 원력을 모으는 자리 잡을 것입니다.

“국제템플스테이센터”가 완공되기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력하실 삼환기업 관계자와 설계를 담당하신 국민대학교 김개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

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불보살님께 기원 드립니다.

불기 2554년 2월 18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